

## 2020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 일시: 2020년 1월 2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

#### □ 프로그램 □

15:00 등록

15:30 인사말씀

- 김석향 원장(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5:40 토론회

- 사회: 조영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표: 1. 제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남북관계 및 군사
  - 김동엽 연구실장(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 제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국제관계
  - 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3. 제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북한사회/문화
  - 김엘렌 연구위원(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토론: 임수호 북한연구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숙 교수(국립외교원)  
홍상영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남북관계 및 군사

김동엽 연구실장(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왜 김정은의 육성신년사가 없었을까?

- 올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신년사 없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로 갈음할 것으로 보임
  - 매년 1월 1일 1면에 신년사를 게재해오던 노동신문도 올해에는 전원회의 결과만을 사진과 함께 공개
    - \* 1987년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86.12.30)로 신년사를 갈음함.
  - 이번 전원회의 결과의 구성과 내용이 기존 신년사와 유사해 같은 이야기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모습을 통해 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
-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개최한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큰 그림과 함께 2020년 달성해야 할 세밀한 작은 그림까지 제시
  - 12월 28일부터 시작한 전원회의는 2019년 마지막 날이자 북한이 북미대화 시한으로 정한 12월 31일 폐막하여 새로운 길 및 신년사와 무관치 않음
  - 직면한 장애와 난관들을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의도를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신년사 대신 전원회의를 통한 명확하고 방향 제시 및 강도 있는 과업 지시로 상황의 엄중함 배가 및 이행의 극대화
  -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와 국가기관 실무담당자, 도인민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장, 시군당위원장을 비롯해 군기관 등 중요부문 일군들까지 방청으로 참가

- 단순히 신년사 방송을 통한 방향제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행할 과업을 지시함으로써 반드시 달성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



- \* 사진의 정치 : 고령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받아 적고 있는 모습

☆ 남다른 해석 : 김정은 육성신년사를 안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 ■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갔을까?

- 전원회의의 핵심어는 23번이나 언급한 ‘정면돌파’로 결국 북한이 이야기 해온 새로운 길이란 외교군사적 측면이 아닌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으로 이해
  -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고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며 전원회의에서도 투쟁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를 제시하여 2020년 신년사 구호를 대체
  - 지난 4월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이후 연말까지 북미대화의 시한을 정해두고 지난 8개월간 북한이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보여준 행보에서 ‘정면돌파전’은 이미 예견된 것

-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미국을 통한 지름길에 한 눈 팔지 않고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정도를 가겠다는 것
  -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은 북한으로 하여금 2018년부터 이어온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는 계기
  - 남측 중재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서 시작된 외도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통치력에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어 남측을 불신
- 지난 4월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8개월간 군사와 경제분야 성과를 거론하면서도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미국을 직접 겨냥
  - 가장 먼저 첨단전략무기를 손에 쥐게 한 국방과학기술의 비약을 앞세우고, 이어 경제건설분야의 성과를 언급해 채찍을 내리기 전에 먼저 칭찬
  - 무엇보다 군사분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인민들의 안보적 우려 해소와 군권장악을 확고히 하면서도 대외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
  - 성과에도 불구하고 엄혹한 2020년을 보내야하고 또 경제개발 5개년전략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원인을 미국에게 돌리고 ‘정면돌파전’ 선택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
-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과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쉽게 끝날 일이 아님을 강조해 내부적인 인적 물적 힘을 토대로 장기전을 준비
  -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미국이 시간벌기를 하며 압살하기 위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현 북미상태를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
  -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미국의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쉽게 나앉는 일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미비핵화 협상의 중단
- 장기전이 될 ‘정면돌파전’을 위해서는 각 방면에서 내부적인 힘을 강화해야 한다

면서 역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임을 재확인하면서 자력갱생(9번)을 강조

-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정돈,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지휘 보장 등 경제토대의 재정비를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
- 주요공업부문,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사업 개선,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기존 신년사에 포함된 국가사업 전반에 대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실무자들을 앞에 두고 과업을 지시하는 모양새
- 장기전에 대비해 당의 영도력 강화와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해야 한다며 인민들의 희생을 요구
- ‘정면돌파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언급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연대나 다자협상 틀을 통해 외교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외교전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
-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신년사와 비교해 북미관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를 포함해 대외관계에 대한 향후 방향 및 과업 제시가 없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2020년엔 경제발전 등 내부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려는 의도
-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력 보유와 강화가 국방건설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와 함께 일부 선별된 분야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집중적인 현대화를 통해 경제집중 하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력 건설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결국 새로운 길인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과 제재국면 속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외교와 군사적 자위력을 바탕으로 자력갱생, 자력강화의 경제총력집중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임
- ‘정면돌파전’이 병진노선으로 회귀나 군사안보적 강경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남다른 해석 : 다행히 북한은 강경한 새로운 길을 가지 않았다?

■ 새로운 전략무기는 뭐 하는 물건일까?

○ 누구든 북한을 상대로는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군사력 강화해 나가는 것 국방건설목표라고 언급하면서 전략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

- 앞서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한 과도한 해석도 경계해야겠지만 단순히 대내외적 수사나 엄포만으로 봐서도 안됨

- 새로운 전략무기는 지난 12월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과 연관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아 고체엔진 ICBM, 다탄두 ICBM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략미사일 탑재 신형잠수함 등도 가능성이 있음

-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4월 20일 3차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 선언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낮으나 ICBM 시험발사는 파기할 수 있음을 예고

- 그러나 12월에 실시한 엔진시험을 바탕으로 단기간내 탄도미사일 발사하기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머지않아’라는 미래적인 표현과 ICBM 시험발사가 북한에게는 중요한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북한이 쉽게 ICBM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북한의 동계훈련기간과 우리의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이를 빌미로 단거리 전술유도탄 및 방사포를 이용한 군사훈련 및 신무기 개발 시험 지속, 9월 당 창건 75주년 전 인공위성 발사 등 국방과학기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미국의 ‘대북입장’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여전히 북한이 북미대화 미련과 기대감을 가지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2020년 북한 내부적 이유로 일시 중단 유보한 상태

- 북한이 “핵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여전히 다소간 북미간 협상의 여지와 미국에

대한 기대를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대화 재개는 난망

-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북한의 발언에서 말 그대로 미국이 제재나 적대시정책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타당함
- 북한이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이나 유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보유국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비핵화협상보다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
- 북한이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게 가장 매력적이며 확실한 돌파구는 미국을 통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영원히 미국과의 관계를 종언하는 것은 아님
- 2020년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제시한 경제발전 등 내부적인 고민을 해소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해 2021년 어느 봄날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2021년 전반기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진 이후 북미협상의 2라운드 시작이 가능
- 그러나 문제는 하노이에서 합의에 실패한 영변과 동창리가 살아 있는 한 영변 핵시설(핵물질)과 동창리(위성발사, 엔진시험) 재활성화를 통해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를 도모하여 2021년 북한의 몸값은 지금과 다를 것이란 점

☆ 남다른 해석 : 새로운 전략무기는 엄포다?

## ■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왜 전혀 없는 걸까?

-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도적 무시’
-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언급했고 2019년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다시금 전략, 남북관계는 2018년 맺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을 두고도 북한의

자위력 확보 노력과 한국의 한미관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전원회의 결과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 2020년 북미 협상의 개최 유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만으로 남북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움
    - 한국 총선, 미국 대선 그리고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이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라는 정치적 일정만으로 남북미 3자 모두 내부 정치적 변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움.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하며 남북관계는 총선 이후를 기대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정면돌파전’이 북중/북러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에 과거 6자 회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 틀을 요구할 가능성
    - 오히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적절한 긴장 하 북미관계를 현상유지하며 ‘정면돌파전’을 가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관계 새판 짜기와 남북관계 ‘정면돌파전’
    - 북미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연결고리를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북미관계에 연동되어 있고 상호주의에 갇힌 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개념 정립 필요
    - 한미 간의 갈등 요소와 남남 갈등을 선제적 논의를 통해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으로 유도함은 물론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갈등 및 위기관리가 필요
- ☆ 남다른 해석 :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국제관계

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 I. 전원회의 보도의 의미

-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보도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이해됨.
-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원회의 보도내용은 내용구성적인 측면에서나 분량 면에서 신년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직전 전원회의인 작년 4월의 제4차 전원회의의 경우 6200자 정도였는데 비해, 이번 전원회의는 작년의 신년사 분량(12,000자)을 훨씬 넘는 18,000자 분량이었음.
- 또한, 이번 전원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어 현재 북한이 직면한 상황의 엄중성과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논의한 중요한 행사였음.
- 전원회의 보도 내내 대미관계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방향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자력갱생하는 것임.

## II. 전원회의 국제관계 부분의 주요 내용

### 1. 기본전략: “정면돌파전”

- 전원회의의 키워드는 “정면돌파전”으로 나타남.
- 조선중앙통신의 전원회의 보도 전면에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를 투쟁구호로 선언하고 있음.
- 대미관계와 핵문제가 주요한 이슈였던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말 그대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정서의 넷째 항목에서도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강조
-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입니다.”

## 2. 대미정책: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

-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준비하며 조미대결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음.
-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시였다.”
-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 이는 미국과의 단기적인 위기고조보다는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며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됨.

### 3. 핵협상: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 요구

- 핵협상 관련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
-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압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략인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별이를 해보자는 것일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 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흥계를 더욱로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박으시였다.”

### 4.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중단 및 군사적 행동

- 김정은 위원장은 대체로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경고하기도 했음.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

- 정치외교적, 군사적 정면돌파전 관련 다양한 방안을 제시.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의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우선적으로 외교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약속(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핵실험과 ICBM 실험 중단을 재고할 것임을 암시함.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여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 보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 III. 기존 신년사의 국제관계 부분과의 비교

- 이전에 북한이 발표했던 신년사와 실제 당해연도 북한의 행동을 고려한 비교 필요
- 과거의 신년사 국제관계 내용과 비교하여 2020년의 전원회의 결정내용이 어느 정도 상황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필요

#### 1. 2019년 신년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

- 2019년 신년사는 대미관계가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간시기
- 북미관계와 핵협상에 대한 일정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표현
- 비교적 북미관계와 핵협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

“지난해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에 당, 국가, 정부급의 래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호상리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립장과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립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2. 2018년 신년사: 위기에서 관여정책으로의 변화

- 2018년 신년사는 2017년의 위기 이후 대외 관여정책으로 변화하는 시기에서 발표
- 2017년의 위기를 마무리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
- 국제관계 분야가 비교적 짧고 원론적인 내용을 표현

“동지들 !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3. 2017년 신년사: 핵위기의 고조

- 2017년 신년사 핵위기가 고조되는 시기

- 북한 스스로도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로켓을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던 해의 신년사였음.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미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이념에 충실할 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IV. 2020년 전원회의 결정내용 국제관계 총평

##### 1) 단기적인 위기보다는 장기적인 대립 준비

- 최근 몇 년간의 신년사와 비교해봤을 때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한 내용은 아님.
- 하지만, 2018년 및 2019년의 신년사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공세적인 내용임.
- 내용상 2017년의 신년사 내용과 논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와 핵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 다만, 대체적인 국제관계의 핵심적인 방향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자력갱생하는 것으로 요약됨.
- 이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충돌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2)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 강화

- 일부 언론에서 실질적인 ‘경제 핵 병진 회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됨.
-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로켓발사에 성공하고 대미 핵억지력 완성을 선언했고,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
- 당시 핵무력 병진노선의 한 축인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며, 다른 한 축인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을 언급
- 이는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라는 언급에서 잘 나타남.
- 따라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의 북한 국가전략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회귀가 아닌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는 ‘정면돌파전’이라고 해석됨.



##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북한사회/문화

김엘렌 연구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 가. 2020년 신년사 대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 28일~31일까지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됨.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전원회의 내용을 신년사로 대체함.

전원회의 보도 내용 표현을 빌리자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한 것으로 하여 우리 당력사와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라고 명시함.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에서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함.

☞ 김정은 위원장의 ‘정면돌파전’ 발언 ->혁명적로선으로 천명 시사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는 것은 김일성 시대 열린 노동당 6기 17차 회의(1990년 1월 5~9일) 이후 29년 만임.

예전과 달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중앙기관 일군들, 도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시,군당위원장들, 중요부문과 단위,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한 점이 주목할 만 상황임.

☞ 전원회의 볼륨도 커지고 기간도 길어진 전원회의 형식은 현 시국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구할 노선의 결정 그리고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됨.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12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축산업, 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

☞ 자강력 제일주의 일환,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 - 2019년 북한 곡물 생산량은 최근 3년 평균(469만톤)보다 낮은 464만톤으로 추정, 식량부족 상황 지속 예상(통일부 자료) -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식량문제 인도적 지원 거부하고 있는 상태.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과 교육을 앞세우면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됨. 제5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에 대해 전략자산이라고 표현하고 경제사업에 문제점이 많을 때에 과학 기술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히 벌리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

☞ 일부 시장화 조치로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함께 경제난 지속으로 인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와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북한당국은 2018년 말부터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음.

○ 전원회의에서 첫번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됨.

(2020.1.1. 조선중앙통신)

1.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
2.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이다.
3.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 것이다.
4.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5.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 것이다.
6.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이 높여 나갈 것이다.
7.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 파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이다.
8.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표1> 2019년 12월 제 7기 제5차 전원회의 사회문화부문(12.28~31)

	평가	당해 과업	구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 속에서 자립, 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적 힘을 일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난국을 맞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 그 게 과시한데 대한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 제기함</li> <li>교육,보건사업 개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 함.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재능있는 인재와 과학기술성과배출, 교원대렬을 질적으로 강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할 문제 -&gt; 교육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제시.</li> <li>보건 : 보건은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 징표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주의보건의 자기의 본태를 지키고 보건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 강조.</li> </ul> </li> <li>문학예술부문과 체육부문 미언급</li> </ul> <p>다만,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건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 것이며 &lt;세상에 부림없어라&gt;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인민의 실생활로 될 ...”이라고 언급.</p>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 2018년부터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sup>1)</sup> 강조하기 시작함. 자강력 제일주의?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의하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이라고 규정. 자

1) 제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 의하면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한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민정권 강화,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제시한 바 있음. 과학기술강국건설, 경제강국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 문명강국건설, 군사강국건설 등은 모두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과제임

강력 제일주의 기반으로 한 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  
"고 함 구현방식으로 "자력갱생, 고군분투"

※ 북한의 최종목표 : 사회주의 위업 완성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해  
야 함 -> 현 단계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는 것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인민정권의 강화, 사상,기술,문화 3  
대 혁명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해야함.

- 인도적 지원 거부(현 상황)
- 선대와 선긋기: 자강력 제일주의와 맞물리면서(제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선대로의 회귀(계기는 백마타고 백두산간 김정은 위원장-> 선군, 사상 강조)
- 북미대화교착 시점부터 다시 자강력제일주의 선대와 사상, 선군사상 혁명적 사상  
강조-> 김정은식 세계화 국제화, 전문화 + 자강력 제일주의와 과거와의 회귀 결합.
- 국제사회 공조, 전문화, 세계화 초점 기조가 바뀐건 아니지만 미묘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사회문화는 국가적 정책-> 대내적으로 인민들에게 설득하고 정당화하는 기제임.
- 김정은 7차 당대회 시 문화예술 분야 낙후 신랄하게 비판.
- 하노이 이후 남한관계의 일정정도 선긋기(제5차 전원회의 - 남북관계 언급 없음)
- 하노이 실패 후 아직까지 완전한 단절 상태는 아님 ->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  
동'을 실행한다면 완전한 단절.

## 나. 사회문화 부문

- 사회문화 범위 : 신년사 사회문화 파트 포괄범위는 크게 교육분야, 보건분야, 체육  
분야, 문학예술분야, 도덕분야를 포괄함.
- 2016년 36년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사회문화 파트가 신년사 분석 시 변  
화 기준이 될 수 있음. 신년사 직전에 열린 5차 전원회의도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사회문화 부문은 제7차 당대회 기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함.
- 2016년 제7차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사회문화 부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김정은 발표자료)
  - 사회문화 부문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함.
  - '사회주의 문명국' ?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  
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정의함.

->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2012년 새해 공동 사설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함 ->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주요한 분야로 포함됨. 정치,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의 안정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새로운 조건에 맞게 사회문화 분야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 교육부문

사회문화 부문에서 첫 번째로 교육 부문의 과제를 제시함.

목표는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 제시. 교육부문이 중요한 이유로 나라의 문명 수준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함.

사업총화보고는 교육부문의 과제로 첫째, 교육체계완비, 둘째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셋째,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을 제시함.

교육체계완비?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를 실현”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 주목할 점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속 있게” 할 것을 요구한 것임. 다시 말해 학교가 있는 지역에 발달된 산업을 특화시켜 가르친다는 말로 농촌에 있는 학교는 농업교육을 공장지대에 있는 학교는 공업교육을 특화시키자는 것. -> 대부분의 학생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고향에 터전을 잡는 북한 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과제? 중고등학교과정 : 정치사상교육 바로세우기,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체득, 지적 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 강화, 실험실습과 기능훈련 비중 늘리기, 도시와 농촌 차이 없애기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만들 것을 요구

#### 나) 보건부문

북한의 보건제도에 대해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리구마다 진료소를 세우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음. 북한은 한 병원 안에서 고려의학 의사와 서양의학 의사가 협력해 진료와 처방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중국의 의료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강하국 보건상은 제7차 당대회에서 “자력자강으로 의약품 생산과 의료기구 생산의 국산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힘.

#### 다) 체육부문

체육강국 건설을 제시함. 체육강국이란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라고 정의함. 체육강국 건설로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어야"한다며 과제를 제시함. 종합과제는 전문체육기술을 세계적 높이에 올려세우는 것,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체육의 과학화 수준을 높일 것.

#### 라) 문학예술 부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열 것을 제시함.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역할을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역할로 규정함.

현재의 북한의 문학예술 부문에 대해 다른 부문과 달리 "만리마의 속도"내지 못해 훌륭한 문학예술 작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총화보고에서 북한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에 대해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 문학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전선의 기수" 되어야 함을 강조.

문학예술, 영화예술, 무대예술, 미술,군중문화예술 등 네 분야로 나눠 많은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

- 문학예술 -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양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문학, 극문학작품 강조.
- 영화예술 -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 강조
- 무대예술, 미술부문 -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 미학관이 구현되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야" 함을 강조.
- 군중문화예술 -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강조.

#### 마) 도덕 부문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다고 함.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스로가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피나도록" 강조.

<표 2> 김정은 육성 신년사(2017~2019) 사회문화 부문

	전년도 평가	당해 과업	구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 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 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함.</li> <li>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함.</li> <li>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함.</li> </ul>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음.(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음)</li> <li>사회주의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일신되었으며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음.</li> <li>온 나라를 혁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li> <li>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li> <li>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야 함.</li> <li>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함.</li> <li>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해야 함.</li> <li>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li> </ul>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p>적 량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 공연활동의 본보기가 창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음.</li> </ul>	<p>부르조아반동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함.</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음.</li> <li>• 문화예술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 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함.</li> <li>•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함.</li> <li>•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함.</li> <li>•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함.</li> <li>•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함.</li> <li>•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에 기백과 광만이 차넘치게 하며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함.</li> <li>•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li> </ul>	<p>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p> <p>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p>



		<p>미학관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함.</p> <p>□ 2019년 신년사 사회문화 키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분야 :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2019).</li> <li>- 문학예술 분야 : 문학이 그동안 정치투쟁의 도구로 표현되었다면 인민 현실과 수요에 맞는 문학예술 강조<sup>2)</sup> (2019), 대집단체조(2019년 사설에 지난해 성과로 언급)<sup>3)</sup></li> <li>- 보건의료 분야 : 사회주의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실현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2019).</li> <li>- 체육 분야 :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 기술을 발전(2019).</li> <li>- 도덕 분야 :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2019).</li> </ul>	
--	--	------------------------------------------------------------------------------------------------------------------------------------------------------------------------------------------------------------------------------------------------------------------------------------------------------------------------------------------------------------------------------------------------------------------------------------------------------------------------------------------------------------------------------------------------------------------------------------------------------	--

2) 2018년 신년사 :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조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2019년 신년사 :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외부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가치관, 생활문화에 선전선동 수단보다는 일상 및 정성에 호소하는 문학예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략 수정. 평화적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초가 사회문화 전반에도 반영되는 경향성 보임.

3) 2013년 <아리랑>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새로운 제목은 <빛나는 조국>임. 이 공연은 정권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 첫선을 보임.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공연의 감각적인 효과를 높였는데 카드섹션(배경대)은 물론이고 무대 바닥에 미디어아트를 적극 활용하는 기법을 최초로 도입 활용하였고, 드론(무인기)과 레이저, 영상 기술, 조명 설비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함. 과

## 다. 경제 부문

- 2016년 제7차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경제 부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김정은 발표자료)
-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과제로 ‘경제강국’ 건설 제시함.  
경제강국?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하여 발전하는 나라”로 정의 ->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 ☞ 키워드 : 자립경제, 지식경제
- 북한이 인식하는 경제 문제를 두 가지  
첫째, 부문별 격차가 크다는 것  
둘째,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행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를 의미하며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뜻함).
- 기존 북한이 수립한 경제노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인민경제의 정보화’ 추가 된 것이 주목할 점
- 북한의 전략적 노선 3가지
- ① 자립성, 주체성 -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전력문제/식량의 자급자족/종합적 경제구조 개선
- ② 현대화, 정보화 - 현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 것. 전략적 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
- ③ 인민생활 향상 -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해야 함.  
“사회주의 경제강국은 생산력 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 특징”, “경제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 ->농업, 경공업, 서비스업, 복지수준 레벨 업 .  
☞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되는 시기는 경제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때였음.
- 앞서 개최된 제7기 4차 전원회의(2019.4.10.)개최를 통해 ‘자립경제 토대 하에 자력갱생’ 관철 결정한 바 있음.

---

학기술을 강조해 온 김정은 위원장이 <빛나는 조국>공연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미숙,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 -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27권, 2019), pp. 109~110.

<표 3> 2019년 12월 제 7기 제5차 전원회의 경제 과업

	전년도 평가	당해 과업	구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많은 제약과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 하 -&gt;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 돌파</li> <li>•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 결속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 자랑스럽게 건설</li> <li>•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건설 -&gt;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선물.</li> <li>•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순천린비료공장건설,어랑천발전소,단천발전소 건설, 곳곳에 대상건설이 면밀히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li> <li>• 금속, 석탄, 건재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장성추세에 대한 언급.</li> <li>• 자력갱생을 호소한 강원도에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적인 경험들을 창조,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보건,지방공업발전의 실적오름에 대해 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 강조(내각의 제역할 못함을 질책-&gt;국가경제사업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화방도 제시)</li> <li>•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과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에 산적해 있는 폐단 질책, 실질적 대책 지시</li> </ul> </li> <li>•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것에 대해 강조(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li> <li>• 과학 개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경제사업에 애로가 많을 시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발전 선도해야)</li> </ul> </li> <li>•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생태환경 보호,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 강조.(적대세력들의 제재에도 경제는 끄덕없고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 것)</li> <li>•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 -&gt; 당의 국방건설로선 강조('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 억제력을 출어쥘던 그 기세, 그 본 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데 대하여'강조)</li> <li>-</li> </ul>	<p>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p>

	가함. => 전체인민이 당의 부 름따라 한사람같이 꺾기 해 견인불발의 증산운 동, 창조운동을 과감하 게 벌려온 위대한 투쟁 의 필연적 결과라고 강 조.		
--	-----------------------------------------------------------------------------------------------------------	--	--

※ 삼지연 읍지구 준공식(12.2), 중평남새온실농장, 양묘장 조업식(12.3), 양덕온천문화  
휴양지 준공식(12.7) 김정은 위원장 참석함. 함북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식  
(12.4) 개최.

-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선언 ->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 강조 ->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현 시기 경제부문 당면과업으로 제시.
- 제 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면돌파전 강행 발언-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감행해야”,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
- ☞ 북미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이 미국에게서 기대할 바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발언. 5차 전원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면돌파전’임.
-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하면서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과의 장기저인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
- ☞ 북미교착상태를 엄중한 현실로 인식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이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대북제재에 대비하여 내부 단결을 호소하고 있음. 다만 아직까지는 2017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국면은 지양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모양새임.

<표 4> 김정은 육성 신년사(2017~2019) 경제 부문

	전년도 평가	당해 과업	구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성대히 진행됨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 펼침)</li> <li>(조선로동당 7차대회를 빛내기 위한)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통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기 마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li> <li>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 확립, 다수확품종 육종해 냄. -&gt;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 -&gt; 과학기술 성과 획득</li> <li>전력, 석탄, 금속, 건재 공업, 철도운수 등 주요 부문 생산과 수송목표 수행 -&gt;자립경제의 잠재력 과시, 사회주의경제 강국건설 추동함.</li> <li>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최고생산년도 수준 돌파하는 성과</li> <li>인민군대가 앞장서 건설장-&gt;신화적인 건설속도 창조</li> <li>함북도지구 자연재해 -&gt; 짧은 기간 기적적 승리</li> <li>혁명과 건설 분야 -&gt; 눈부신 성과(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총력 집중 강조(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데 5개년전략 수행의 지름길 존재)</li> <li>과학기술 :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 -&gt;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 생산단위와 연구기관의 협동 강화,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튼튼히 꾸려-&gt;생산확대, 경영관리개선-&gt;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해야 함.</li> <li>경제전략목표 수행을 위해서 전력: 발전설비와 구조물 보수. 기술 개조 금속: 선진기술도입, 철생산원가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 운영 정상화 화학: 공업의 기초,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 인민생활 향상 중요한 역할 석탄, 철도운수부문: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 기계: 기계공장의 현대화, 성능 높은 기계설비를 질적으로 보장 경공업: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gt;바른 경영 전략-&gt;생산 활성화-&gt;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향상 건설: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 차련합기업소 현대화 공사, 원산지구 건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gt;역량집중 국토관리:현대적인 양묘장, 산림복구전투, 강하천관리,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 계획적 진행</li> <li>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전환위해 -&gt;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혁신</li> </ul>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이 필요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함 : 금속공업 주체화 실현,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 경공업 부문의 주체화, 현대화, 국산화. 기계공업부문의 자력갱생, 과학기술에 의해 성과 달성. 농업부문의 과학농업화로 인해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 증가함. 려명거리,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 수행함. 만리마 속도창조를 위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인민군 창건 70돌</li> <li>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의 강화,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대북제재 하 국산화 정책기조 유지)</li> <li>전력공업의 최우선 과제(전력생산증대, 전력손실, 낭비 줄이기)</li> <li>중화학분야(금속, 화학, 기계공업)에서 자립성, 주체성 강조</li> <li>경공업 분야 -&gt; 인민생활 강조</li> <li>건설부문과업 -&gt; 원산갈마해야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기2단계 공사, 삼자연군꾸리기, 살림집 건설 -&gt; 힘넣기</li> <li>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적 대책 필요(원론적 수준)</li> <li>지방경제 자립성(자율성의 의미보다는 대북제재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자력갱생 요구)</li> <li>키워드 :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li> </ul>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 -&gt;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 관철 -&gt; 자립경제 토대 강화됨.</li> <li>인민경제의 주체화 로선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 이룩: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 증대,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 확대(김철, 황철 생산 증대),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 사업 추진, 경공업제품의 질적 향상 석탄공업부문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킴. 농업부문에서 알곡 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생산,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 구축 강조</li> <li>부문별 과업을 전력, 금속, 화학, 기계 순으로 제시. 특히 전력의 경우 경제발전 5개년계획 중 전력 목표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li> <li>지속적인 농업개혁 개혁 조치 : 기술적 처방 -&gt; 생산자 인센티브 강조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운치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 "(농장원)개인부업 축산을 장려" 주목할 필요 있음.</li> <li>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군수공업 강조(2018년에도 군수공업이 인민경제 향상 추동력임을 밝힌바 있음)</li> <li>새로운 건설사업 지속 가능성, 세멘</li> </ul>	<p>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p> <p>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p>

	<p>투쟁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 다수확 이룩(평년치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 <u>군수공업부문에서 경제건설에 역량 집중한 결과 농기계,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을 생산 -&gt;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추동함.</u></p>	<p>트같은 자재조달의 국산화 강조 (2018년 원산갈마지구 강조 2019년 삼지연 언급)</p> <p>“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록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함.</li> <li>•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용의(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밝힘 -&gt; 대북제재의 복회로 성격</li> <li>• 새로운 길<sup>4)</sup> : 경제, 핵 병진노선 회귀보다는 미국의 상응조치 강조를 위한 포석 -&gt; 6.12 합의 이행 필요성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수사적 배수진 성격</li> <li>• 키워드 : 경제, 자력갱생(20017년 신년사부터 강조)</li> </ul>	
--	----------------------------------------------------------------------------------------------------------------------------------	------------------------------------------------------------------------------------------------------------------------------------------------------------------------------------------------------------------------------------------------------------------------------------------------------------------------------------------------------------------------------------------------------------------------------------------------------------------------------------------------------------------------------------------------------------------------------------------------	--

## 라. 평가 및 전망

2020년은 신년사 대신 나흘간 지속되었던 제 7기 제5차 전원회의 내용으로 대체되었음. 전원회의가 이틀이상 지속된 적은 김일성이후 29년만임. 하노이 회담 및 실무협상이 합의점 없이 결렬되는 등 북미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함. 결과적으로 2016년 당대회 기조와 크게 변한 것은 없음. 2016년 당대회 이후 북미관계의 개선 방향에 따라 그동안 협조적이었던 북한의 기조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성을 보임, 전원회의 내용은 북미 교착관계에서 더 기대할 바가 없음을 시사하고 미국을 비판하

4)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 신년사 중에서.

면서 내부적으로 결속의 힘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됨. 그러나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국면은 일단 지양하는 것으로 보임. 이것은 북미대화 혹은 북미협상 진행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란 언급한 바는 시사점이 있음. 북한이 미국에 기대할 바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실제행동으로 넘어가는 순간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함. 제5차 전원회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면돌파전’이라는 단어임.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할 확인하고 제재 국면 속에서 경제 활로 모색하는 방향성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중·러 관계는 중소분쟁 이전으로 다시 회귀한 상태로 평가됨. 이러한 중·러 밀착관계<sup>5)</sup>를 활용하여 북한은 제재 극복 방안을 모색 하고 경제 협력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19년 12월 16일 유엔안보리에서 중·러는 대북제재 완화요구 결의한 초안에서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대상에서 면제, 북한의 해산물, 섬유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시한폐지에 관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 있음. 2017년 말까지 초강경 대북제재를 잇달아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일부 해제요구가 중·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안보리 대북제재와 마찬가지로 제재 해지도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함.<sup>6)</sup> 주목해야 할 점은 전례 없던 중·러의 결의안 초안 요구가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도 이를 요청한 배경임. 이는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재개하더라도 이 두 나라는 새로운 유엔제재를 반기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음. 중·러는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북 해제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전환국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미국의 자국에 대한 인권개입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sup>7)</sup>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5)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2800킬로미터 가스관이 1차로 개통됨. 양국은 가스관을 8000 킬로미터까지 계속 늘려 상하이에도 공급할 예정.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강화로 인해 미국은 세계최대 에너지 수출국가 계획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됨. 전 세계가 셰일 가스에 주목한 것은 막대한 매장량 때문. 이러한 셰일가스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오름.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 중 셰일가스 비중을 2010년 23%에서 2035년 49%까지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동맹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가 계획에 비상이 걸림. 저공해 에너지가 절실한 중국과 유럽 판로가 막혀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서방에 맞서고 있는 중·러 연합으로 인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셰일가스 의존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에너지원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

6)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행사 없이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함.

7)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통적인 압박을 받는 부분은 인권문제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발표됨. 그러나 해당 제재는 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의 사망사건 때부터 언급 됨. 또한 외교 문제로 서방제재의 표면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동부 전쟁 문제였음. 최근 홍콩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중국도 인권문제에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임. 2019년 12월 19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



우호적인 대외적인 여건을 만들고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sup>8)</sup>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음. 2019년의 새로운 길은 경제와 핵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6.12 합의를 이행할 필요 없다는 수사적 배수진이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비핵화, 경제발전의 길이 북미 협상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협력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 양상은 당분간 지양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이에 따라 대화 계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에 있을 때 대북제재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고 있을 것임. 두 지도자 모두 중앙집권적 행태를 보이는 top-down 리더형이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격적인 동시에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sup>9)</sup>

정치에 연동된 경제문제는 북한의 사회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일반적으로 신년사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 관련 이슈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국제문제, 정치적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부문 메시지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음. 이는 국제적 정치상황이 북한주민에게 전하는 국내 메시지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침체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 있음. 그러나 민생경제는 지금의 시장물가와 환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됨.

2020년은 당창건 75주년인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시기임. 따라서 북한이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력갱생, 자력번영, 자력부강을 추구할 것임. 또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해외 관광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외화벌이 송환<sup>10)</sup>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sup>11)</sup> 인력 송출 중단 대응책으로 유학 혹은 연수 비자 논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에 이

---

관보가 현지 언론에 북한 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에 북한이 반박한 바 있음.

8)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 중에서.

9)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2018, 『김정은 체제 변한것과 변하지 않는 것』, 115~145쪽.

10)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측에 전달했다고 29일 아사히 신문이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간부를 인용해 보도함(연합뉴스, 2019.12.29.)

11)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은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관계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조치했음.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397호 이행 중간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연간 5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이행률은 약 23%로 파악되고 있으며 2만 3267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됨. 이중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80%정도를 차지하며 중국의 경우 보고서가 비공개 상태임.

어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해 북중러 벨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추가 조치로 남은 것은 육로를 이용한 원유 및 정제유 공급 중단, 해상봉쇄 수준의 초강력 대응조치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연내 북한 인력 송출문제가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음. 여기에 최근 미국 상원 민주당 유력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빅딜대신 단계적 협상을 제기한 점도 향후 미 대선 국면에서 대북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2017년(트럼프 대권 1년차, 북한의 글로벌 긴장 고조 시기)과 같은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현재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혹은 강화는 불가능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로서는 ‘북-중’ 국경을 간과하는 대북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두 경계 존재의 전략적인 함의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부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 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력사와 자주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도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시, 군당위원장들, 중요부문과 단위,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4.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8개월간은 대단히 강도높은 투쟁과 과감한 전진의 련속이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그 기간 항상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권익,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대내외정치로선을 수립하고 견지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용진하여온 우리의 전투적로정을 새로운 승리로 계속해 이어가자면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어야 하며 현정세의 추이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제들은 현실에 대한 랭철한 판단에 기초한 적실하고 과감한 대책을 요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은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속에서 자립, 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적힘이 일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 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따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몇개월동안 우리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흑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으나 그 어떤 곤난도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굴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돌진을 멈춰세울수도 지체시킬수도 없었으며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추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

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적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찾을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모든 연구과제들은 주체적력량 즉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설계가, 군수로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승리로 되며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수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올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된데 대하여서와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 공사가 결속되고 혁명전통 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가 자랑스럽게 건설되었으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우리 당의 구상대로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선물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대상건설들도 면밀히 추진되고 금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국에 자력갱생경쟁을 호소한 강원도에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적인 경험들을 계속 창조하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도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것은 전체 인민이 당의 부름따라 한사람같이 궂기해 견인불발의 증산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위대한 투쟁의 필연적결과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라고 략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것일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흉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라고 못박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적과의 치열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립, 자강의 거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대담하게 혁신하지 못하고 침체되어있는 국가관리사업과 경제사업 등 현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수행하려는 높은 책임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정확히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만이 우리 위업을 성공적으로 떠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고 전당이 사상정신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모든 일군들이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심각히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정세하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기여하고있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몫을 엄밀히 따져보고 략심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무거운 과제를 억척같이 떠메고 완강히 돌진해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란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

당겨질것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시기 나라의 경제실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준엄한 난국에 부딪친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웨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있는 폐단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세세히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고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없다보니 국가의 경제조직자적역할이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활성화하여 장성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심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이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립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시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하며 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건적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전원회의이후부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중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었다.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전반적인 기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상업을 시급히 복원하여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국가의 리익과 인민들의 편리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게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대책하기 위한 문제,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경쟁을 벌리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할데 대한 문제,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국가적으로 전문건설력량을 확대강화하고 건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수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경제장성의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명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공업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들에 산적되어 있는 폐단들과 부진상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일일이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땀때기식투자, 자체의 잠재력에 의거하지 않는 하루살이식투자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경제사업에서 그 어떤 진일보도 가져올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망성있게 사업하는것이 혁명을 책임지는 마땅한 태도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목표가 확정되면 국가적으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고 전인민적인 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맹렬히 벌려 그것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농업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여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나라의 농업토지를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소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우리 나라를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면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변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재능있는 인재들과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 문제, 교원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문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품을 들여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보건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라고 언급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이 자기의 본태를 지키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모든 의료일군들을 무한한 인간애와 높은 의학적자질을 갖춘 로동당의 붉은 보건전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노력에 의거한 거창한 애국투쟁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극력 아껴쓸 때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의 경제는 끄떡없고 우리의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찾아내고 더 많이 증산절약하는 경쟁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 창조물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우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의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

을 끼얹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 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것이 더없이 기쁘며 이것이 우리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하며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으로 보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으로 보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현 국면을 타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8년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제일 많은 품을 들이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매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 과업과 방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능숙히 조직동원하는것이며 당의 향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간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

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오늘의 이 사회주의운명의 기로에서의 승과 패의 결정은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봉착한 난관들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것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당은 곳곳이 뻗치고 서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것이 우리의 역센 혁명신념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모두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어 승리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보고를 심중히 청취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조성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으로써 혁명적진군을 방해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정확히 새겨안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강령적인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책임감과 역적불변의 혁명신념,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우리 당 위원장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서면토론들이 제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동지, 내각총리 김재룡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태형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용원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동지,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김광남동지를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중앙의 웅대한 작전도, 설계도를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토로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난관을 단호히 박차고 자력부흥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데 대한 위원장동지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준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내재하고있는 편향들과 본질적결함, 그 근본원인을 심각히 총화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고 정치사상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려 그들모두를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체질화한 자력자강의 투사, 참된 애국자로 준비시키며 자체실정에 맞는 자력갱생전략으로 증산투쟁과 현대화를 힘있게 벌리도록 키잡이와 견인을 잘해나감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에 관한 사상과 의도를 자랑찬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겠다는것을 본 전원회의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놓고 심중하고 적극적인 연구토의가 진행된데 따라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어있다.

첫째,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것이다.

셋째,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것이다.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것이다.

다섯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것이다.

여섯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것이다.

일곱째,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것이다.

여덟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일환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김정관동지, 박정천동지, 김형준동지,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김일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해임 및 선거하였다.

리일환동지, 김형준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김형준동지, 한광상동지, 강종관동지, 김광철동지, 김경준동지, 양승호동지, 곽창식동지, 박광주동지, 박명수동지, 리봉춘동지, 송석원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오일정동지, 김영환동지, 김일철동지, 김정호동지, 손영훈동지, 림광일동지, 최상건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장광명동지, 전현철동지, 심홍빈동지, 리태일동지, 최광일동지, 리완식동지, 리영철동지, 최춘길동지, 김학철동지, 김철동지, 박정근동지, 전학철동지, 조용덕동지, 신영철동지, 김승진동지, 문정웅동지, 이정길동지, 최성남동지, 전형길동지, 강선동지, 김영배동지, 김기룡동지, 신흥철동지, 김영남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위원 소환, 보선이 있었다.

리상원동지를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리일환동지, 김형준동지, 최휘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최부일동지, 허철만동지, 리호림동지, 한광상동지, 오일정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을 임명하였다.

김동일동지, 리영길동지, 김여정동지, 리영식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도당위원장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김영환동지를 량강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국가기관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김일철동지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전학철동지를 석탄공업상으로, 전명식동지를 문화상으로, 김승진동지를 국가과학원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원회의를 마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가 조성된 국면을 정면돌파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상승시키는데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객관적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전당적인 접수토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의사업이 광범한 군중속에 접근되지 못하고 행사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회의사상을 그 집행의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대중에게 정확히 전달침투하여 이 과정이 곧 전 대오를 각성분발시키고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사상동원과정, 작전과정, 임무분담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상을 전달침투하는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들과 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작전과 임무분담을 치밀하게 짜고들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구호만 웨치면서 빈말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임무를 똑똑히 확정하며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억척같이 떠메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 전당, 전민, 전군을 총궐기, 총매진시키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된 뜻깊은 장소에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존엄높은 우리 당의 령도력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따라 용진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만천하에 떨친 력사적인 대회로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